올 봄 시작된 지독한 가뭄…피해대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 5월 강수량 역대 최저
강수일수도 30년새 2번째로 낮아
고온현상·일조시간 늘어난 영향
기상청 "8월돼야 해소될 전망"

올해 봄부터 시작된 지독한 가뭄이 초여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 논밭이 말라가고 있다.

가뭄의 원인으로는 평년 대비 적어진 강수량과 온난화 여파로 인한 고온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조시간 또한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극심한 가뭄 현상은 다음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6~7월에도 역대 최저 강수량을 기록한 5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의 '2022년 봄철 기후분석결과' 등에 따르면 올해 3~5월 평균기온은 광주·전남지역이 13.7도로 최근 30년 평균기온 대비 1.1도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한 시기인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5월광주·전남지역은이른더위가시작되면서평균기온이최근30년사이높게나타났다.

올해 5월 평균기온 순위를 살펴보면 흑산도는 16.6도로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여수는 18.9도(3위), 완도 18.8도(4위), 보성군 18.6도(5위)로 예년과 비교해 평균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고온현상은 7~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또한, 고온현상이 이어진 봄철에는 누적 강수량(3~5월)이 평년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1월~6월) 누적 강수량은 234.7㎜로 평년의 55.4%에 불과했고, 현재 지역별로 '가뭄 경계'가 발령된 상태다.

봄철(3~5월) 강수량은 205.7㎜로 평년보다 적었고, 지난 5월 평균기온은 18.1도로 평년보다 높은데 비해 강수량은 2.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봄철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강수일수도 16일을 기록해 최근 30년 역대 2번째로 적었다.

저수지 평균 저수율 또한 예년보다 적은 50.0%를 기록, 작년 동기(60~70%)에 못 미쳐 농업용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봄철 가뭄의 원인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 때문이다"면서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기압이 높은 기압마루 지역이 폭 넓게 형성돼 저기압이 한반도 바깥쪽으로 통과했으며, 저기압 주변 공기가 모이는 지역도 활성화 되지 않아 강수량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또 다음달까지 5월과 비슷한 강수량을 유지하면서 전남지역에 기상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후예측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달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은 강수량이 예측됨에 따라 가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7~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으며, 강수량은 8월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6~7월까지는 역대급 가뭄이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가뭄 정보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업용수는 밭 가뭄 우려지역에 농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중"이라며 "7월 가뭄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가뭄 피해 지역 모니터링과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전남대 책 나눔 개교 70주년을 맞아 13일 오전 광주 전남대에서 개막한 '인문·사회계열 책 나눔행사' 장을 찾은 시민과 학생, 교직원 등이 책을 고르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원들의 전공·교양서적을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김태규 기자

'학동 참사' 책임자들 최대 징역 7년6개월 구형

검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산 현장소장 서 모씨(58)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 모씨(29)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 모씨(48)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 모씨(60)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현산 측 안전부장 김 모씨(58)와 공무부장 노 모씨(54),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 모씨(50)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해체 계획서 등을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환준 기자

화정아이파크 붕괴 재판…책임자들 책임 회피

현산 vs 가현, 법적공방 예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들이 앞으로 본격화되는 재판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 안전보건 책임자(현장소장) 이 모씨(49) 등 피고인 11명과 법인 3곳(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주로 현산과 가현 측은 기소의 증거인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붕괴원인 조사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경찰 자문 전문가의 분석보고서 등 3가지 전문가들의 사고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 초기에는 보고서·감정서·의견서 등을 낸 전문가 4명을 잇달아 증인 심문해, 전문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현산 측과 가현 측 변호인들은 각자 피고인들의 책임을 공범으로 기소된 상대방으로 미루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현산 측은 지난 1차 준비기일 당시 주장한 대로, 동바리 해체의 경우 원청인 현산 직원들의 지시 없이 하청업체 측이 무단으로 작업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산은 "자체 전문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바리가 3개 층에 정상적으로 있었다면,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를 진행됐더라도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바리를 무단 해체한 가현 측에 붕괴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전개할 뜻을 내비쳤다.

반면 가현 측은 "39층에서 최초 붕괴가 시작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체 분석해 향후 결과가 나오면 재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산 측은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재판 시작 전 발표(PT)를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가현 측은 현산 측의 주장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고려해 "PT 내용을 반박할 시간을 달라"고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최환준 기자

건물 외벽서 작업하던 70대 추락사

상가 건물 외벽에서 창틀 교체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완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2분께 완도군 완도읍 한 3층짜리 건물 3층에서 A씨(72)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해당 건물 외벽에서 창틀 교체를 위해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최규욱 기자

DASCO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Ltd.
www.dasco.kr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지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1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럭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다스코 | 쏠에코(수상태양광) |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 스틸코(철근유통·가공) | 학교법인홍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 홍인(부동산 임대업)